

전라북도 익산시 무암로 895(신용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음 1월 24일) 제17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현대 2017 시즌 우승 기원’

지난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17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출정식에 송하진도지사와 황헌 도의장, 김승수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 선수를 비롯한 전북현대축구단, 축구팬들이 2017 우승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호텔컨벤션 지식산업센터 익산에 ‘첫 삽’

익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는 익산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정책펀드 예산 220억원을 호남권 최초로 유치하고 호텔컨벤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안영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조판욱 (유)웨스턴라이프 컨소시엄 대표, 조배숙 국회의원, 소병홍 시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컨벤션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익산시와 전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웨스턴라이프컨소시엄은 총 53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도·익산시-익산 산단공 투자 협약... 530억원 투입

이번 협약은 익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가 노후된 익산국가산업단지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맺게 된 쾌거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활동하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정책자금의 지역 인배를 요구해 이번 사업 유치에 밑거름을 만들었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은 “호텔관광과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익산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했었는데 이번 투자 확충으로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익산 국가산업단지가 혁신사업과 재생사업을 융합하여 추진할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의 성과가 증폭되어 익산 산업발전의 동력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관계자는 “호텔컨벤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화된 익산국가산업단지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특히 익산을 포함한 전북권 내에서 상징적인 기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익산비즈니스센터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결코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국 어디든 2시간내 연결

전북 SOC 대동맥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 신항만 적기 확충키로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 신항만 적기 건설과 사통발달 SOC 확충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전북 어디든 1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연계망을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가 서해안시대 미래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글로벌 농 · 생명수도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세계 잼버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2023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에 세계적 기업이 입주해 새만금 산단이 복격 가능되고 항공 경험 단지 조성 예정으로 항공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대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물류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부두 점안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민자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점안시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1단계 사업(4선석)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14선석)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부두는 2·3만톤급으로 계획돼 있어 대형선박 접안이 불가능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선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해,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철도이용객들이 늘어 전라선 이용객은 연간 2,800만 이상으로 예측된다.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신속, 정확, 안전한 열차운행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져 많은 관광객들과 철도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복선전철화가 완료돼 운영중인 전라선은 고속철도에 비해 열차운행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전국 2시간 내 고속철도망

구축과 전북 1시간대 도로 연결망을 위해 신규노선인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전남,북의 산업과 관광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부내륙권(정읍~남원)국도 건설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동부내륙권 개발을 도모하고 정북권 어디든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연계망을 조기 확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의 교통망이 취약해 영 · 호남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동서간 화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단절구간인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과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를 건설해 한반도 끊어진 허리축 연결로 동서화합은 물론, 양 지역간 물적 · 인적교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전북발전 구상을 제19대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 · 전문가 등과 연계해 사업추진 당위성 논리와 사업내용을 더욱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탄핵 지연, 국민이 지켜본다”

▶ 전국 곳곳 촛불 ‘활활’ 타올라

이재용 구속 후 첫 집회

전북도민들, “우리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자” 외치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후 첫 주말인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84만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인 이날에도 날씨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촛불 인파는 지난주(전국 80만명)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 대통령 퇴진 촉구 16차 촛불집회가 열린 이날 최종금지 시간(오후 9시20분) 기준으로 서울(광화문) 80만명, 지방 4만5000명 등 84만 5000명(이하 연인원)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방별로는 ▲부산 2만3000명 ▲광주 1만명 ▲대구 2000명 ▲전주 1300명 ▲전남(14개 시군) 2700명 ▲경남(창원, 김해, 진주 등) 1200명 ▲울산 1000명 ▲제주 1000명 등이다.

퇴진행동은 “갑작스러운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탄핵 지연 어렵다’ ‘특검 기간 연장하라’ 요구하며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며 “다음주 48시간 비상행동과 17차 총집중 범국민행동의 날을 힘차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오는 25일 주말 집회는 ‘서울 집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232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지난해 12월 3일 6차 촛불집회 때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즉각 물러나라’ 전북도민들의 함성

전북지역에서도 촛불의 열기는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전주시 관동로사거리에서 열린 ‘제 14차 전북도민총궐기’가 열렸다.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1300여명의 도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향해 “너희는 이제 끝났다”며 즉각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재용의 구속은 재벌신화를 무너트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도 전북도민총궐기에 참가했다. 이 시장은 “나 함께 나눠 가져야 할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회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지 않았어도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섰을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현재를 향해 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시 20분까지 본 행사를 마친 후, 거리 행진을 이어간 뒤 풍납동 앞 광장에서 해산했다. /김민근 기자

한국여행 1번지 전라북도

전북투어패스

전북관광, 카드 하나면 OK!

이제, 카드 하나로 저렴하고 편리하게-전라북도를 더욱 즐겁게 여행하세요!

www.jbtourpass.kr

J B TOUR PASS

- 관광지 무료입장
- 음식점 특별할인
- 숙소할인, 무료주차
- 시내버스 자유이용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1일권 (8,300원)	전북투어패스 교통형 1일권 (12,900원)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2일권 (13,900원)	전북투어패스 교통형 2일권 (23,400원)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3일권 (19,900원)	전북투어패스 교통형 3일권 (33,900원)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한여름권 (4,200원)	전북투어패스 교통형 한여름권 (8,900원)